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

자유로운 상상 혹은 재해석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아이디어 국제 공모전의 심사위원, 행정도시 국제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맡았기 때문이다.

에디터 백지현 번역 우영선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거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작품뿐 아니라 그 제자의 업적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20세기를 빛낸 주요 건축가 중 한 명인 겐조 단게(Kenzo Tange)는 일본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급속도로 퍼뜨렸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덕분에 일본은 때때로 도발적이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20세기 예술의 파노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대학이나 실무 영역에서 받은 겐조 단게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건축 단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회원 중 몇몇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중 한 명이 바로 아라타 이소자키이다. 결국 거장 겐조 단게는 거장 아라타 이소자키를 키워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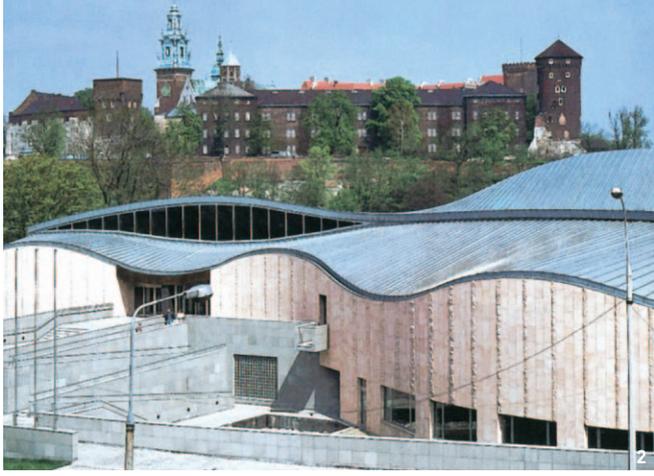
삶과 작품

아라타 이소자키는 1931년에 일본의 오이타(Oita)에서 태어났다. 동경대학 재학시 겐조 단게 아래에서 공부했으며, 졸업하자마자 스승의

사무실에 입사해 1963년까지 10년 넘게 일했다. 이소자키의 건축양식은 1960년대 그가 신봉했던 다이내믹한 건축 사조를 지향하는 메타볼리즘을 거부하면서부터 여러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겐조 단게의 사무실에서 이소자키는 동경 도심 재개발 계획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로 다뤄야 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에서 그가 창의력을 발휘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문과 실무 영역이었다. 몇 년 후 단계는 마케도니아의 스킵페(Skopje) 도시 재건 프로젝트(1965~1966년)와 오사카 국제 박람회의 축제광장(Festival Plaza)과 같은 프로젝트들, 즉 메타볼리즘의 구성 요소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에 이소자키를 투입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소자키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갔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난해한 신기술을 이용한 파편화와 조합화 경향이 엿보이긴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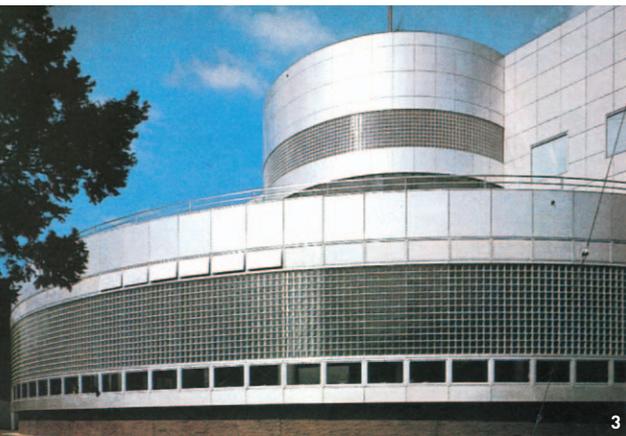




경기장(Sant Jordi Sports Palace)이다. 이 경기장은 이탈리아 비첸차(Vicenza)에 있는 이탈리아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Andrea Palladio)의 바실리카(Basilica)를 연상시키지만 진보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 선례를 재해석했다. 일본 후지미(Fujimi) 시의 컨트리 클럽(Country Club)도 건축가 팔라디오로부터 유래한 팔라디오풍의 빌라를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우피치(Uffizi) 미술관 출입구 디자인은 시노리아 광장(Piazza della Signoria)에 있는 중세 란치 회랑(Loggia dei Lanzi)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만 말이다. 후쿠오카 현의 기타큐슈(Kitakyushu) 중앙 도서관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정육면체와 삼각형으로 구성된 이 건물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벨레처럼 땅 위를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듯한 넓은 열람실 터널을 향해 열려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이소자키의 역사주의에 가까운 스타일로 관심을 돌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역사주의 운동은 초기 단계였다. 이소자키가 추구했던 스타일은 유명한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노비시마 거리(Strada Novissima)> 전시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노비시마 거리> 전시에서 그는 한스 홀라인(Hans Hollein)과 같은 여러 건축가들과 나란히 자신의 건축적 사고의 단편들을 제시해 보였다. 1980년대 이후까지 이소자키는 줄리오 로마노(Giulio Romano), 클라우드 니콜라스 르두(Claude Nicolas Ledoux), 칼 프리드리히 싱켈(Karl Friedrich Schinkel) 등 과거 건축가들의 영감을 발판으로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역사적 선례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 중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산 조르디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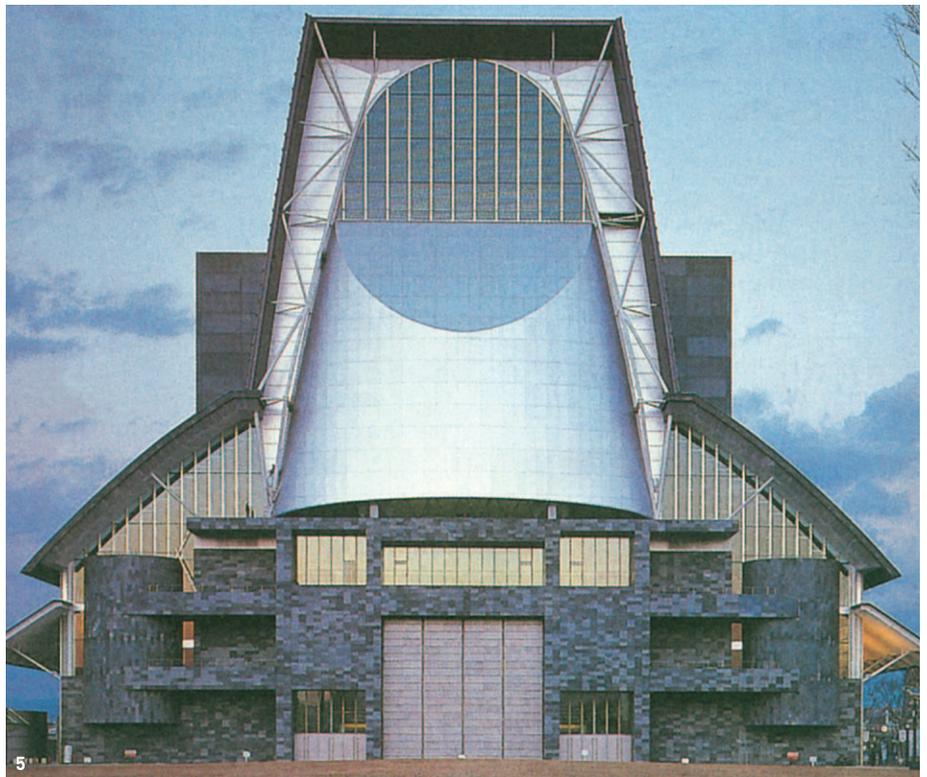
최근 들어 이소자키는 건물과 그 주변 환경 사이의 대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청사는 조용한 도시에 정박한 우주선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떤 건축물은 성의 기단 위에 드러누운 고래와 같을 수도 있다.” 그의 건축 성향이 잘 나타난 사례는 성을 배경으로 언덕의 경사지에서 있는 폴란드 크라코프(Cracow)의 일본 예술·기술 센터(Center of Japanese Art and Technology, 1990~1994년)이다. 다른 후기 작품들로는 로스앤젤레스의 현대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6년 개관), 동경대학교 예술 디자인 학부(1990년),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신관(1992년) 등이 있다. ☺



3



4



5

1 오카노야마(Okanoyama) 그래픽 아트 미술관, 1982~1984년. 일본 효고현 니시와키(Nishiwaki). 2 일본 예술·기술 센터, 1990~1994년. 폴란드 크라코프. 3 시청사, 1975~1978년. 일본 카미오카(Kamioka). 4 우피치 미술관의 새로운 출입구 모델, 1996년. 5 문화센터와 회의장, 1999년. 일본 신주쿠(Shizuoka).